

한라시론



민 무 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부는 5개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현재 2020~2024년까지 이행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마련돼 각 지자체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의 큰 특징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는 동시에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실현하는 기본적 가치로써 사회전체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지난 해 16개월 된 정인이

아동 권리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제주 만들어야

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해 새해 초부터 제주에서 발생한 7개월 된 영아 학대 사망사건은 그간의 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13년 울주와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우리사회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근절대책을 매번 발표하고 있지만 아동을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참혹한 사건은 앞으로 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월 8일 국회는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친권자가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60개국만 자녀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국제적 규범에 발맞추고자 최종적으로 민법에 남아있던 체벌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1979년 세계에서 최초로 체벌금지를 시행한 스웨덴의 경우 법 시행 전 50%의 부모들이 자녀체벌을 용인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는 10%로 감소했다는 추적조사도 있다. 자녀에 대한 체벌은 심각한 폭력과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민법개정案的 취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의 아동들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전국 신고접수건수는 총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7% 증가했다. 제주의 경우 959건이 신고돼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여전히 높은 비율의 친부모가 학대의 주체라는 점, 대부분의 피해장소가 가정이라는 점도 변화가 없다. 이러한 현실의 기저에는 부모가 아동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작년 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제주의 18세 미만 아동 750명과 보호자 25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보호자의 24.4%는 아동양육시 신체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명 중 1명은 여전히 아동에게 신체적 처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서 아동을 위해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호자는 돌봄시설(23.6%)을 꼽은 반면, 아동들은 ‘아동 학대 방지’(28.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5명 중 1명 이상의 아동은 가족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보호자와 아동간 인식 격차를 적절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의 지표가 된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설정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나아가 참여의 권리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제주사회를 만들겠다는고.

사설

팬생이모자반 근본적 활용방안 강구해야

제주도내 해안가를 온통 뒤덮고 있는 팬생이모자반 때문에 걱정이 다. 예년에 비해 일찍 밀려들면서 앞으로 얼마나 유입될지 예측이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 통상 팬생이모자반은 3월에서 6월 사이 제주에 유입됐지만 올해는 1월 중순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다. 올해 제주지역에 발생한 팬생이모자반은 1월에만 5913t에 이른다. 지난해 1년간 유입된 5186t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제주도의 팬생이모자반 문제

팬스로 돼 있어 우기시 2차 오염발생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은 “제주도 어선을 활용한 해상에서의 팬생이모자반 합동수거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범 의원도 “팬생이모자반에 대한 철저한 수거와 함께 로리오라이드의 황산화 효능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팬생이모자반에 대한 확실한 처리대책이나 활용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주도의 활용대책이라면 수거한 팬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무상 제공한다는 것이 전부다. 수년전부터 매년 수천t씩 유입되고 있는데도 여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팬생이모자반의 폐해를 모르지 않을텐데 말이다. 단순히 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데다 양식장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잖은가. 팬생이모자반의 수거대책은 물론 활용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인구소멸지역 ‘경고’... 조기 대책 마련을

도내 읍면동 지역 상당수가 인구감소 시대와 맞물려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구소멸은 지역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자 제주의 미래에 재난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해서도 인구소멸위험에 처한 읍면동 지역의 선택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0.44) 천지동(0.45) 한림읍(0.46) 효돈동(0.47) 대정읍(0.48) 등의 경우는 소멸위험진입단계(0.2~0.5미만)로 분석됐다. 연구원 측은 이번 연구로 인구소멸위험단계에 들어간 읍면동을 핵심생산인구 정착지원 1순위로 정해 권역 정착지원센터 설치,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과 구 도심권 인구소멸 문제는 가장 큰 현안 중의 현안이다. 제주도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기존 추진 중인 인구유입·출산장려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위기극복 방안들도 논의돼야 한다.

편집국 25시

제2공항과 김도영



김 도 영
편집부 기자
doyoung@ihalla.com

서울시민 시절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유독 길었다. 탑승할 비행기는 당연하다는 듯 지연되고 공항은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혼잡한 시간대의 비행기를 선택한 나의 문제였을까?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잠깐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비행기는 이번 이유로 지연돼 언제 출발하겠습니까.” 이런 안내방송은 듣지 않아도 될 테니까.

제주시민으로 살고 있다. 생각보다 비행기를 탈 일은 많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었다. 물론 개인마다 삶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다.

“굳이 2개의 공항이 필요할까?” 김도영의 마음은 이렇거나 간사하다. 나는 내 상황에 따라 A라는 의견을 가졌다가 B라는 생각도 가졌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C나 D라는 견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8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도민은 반대가,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많았다. 여론조사 전부터 각자의 입장과 의견에 따라 목소리를 냈던 이들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두의 상황은 이해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하루 앞선 22일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환경부의 입장을 물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과 정부가 서로 떠넘기기라도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동안에도 여론은 갈등하고 있다. 제2공항을 건설하는 건설하지 않든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이다. 더 이상의 표류는 위험해 보인다.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은 결정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뉴스-in

“여성 안전분야 체감·만족도 높일 것”

고영권 부지사, 협업 강화 약속

○…고영권 제주도 정부부지사가 지난 23일 여성 안전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민·관 협업 강화를 약속.

고 부지사는 이날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현장과 여성긴급전화 1336제주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 효과 등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앞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여성 안전분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이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고대로그 기자

“3월, 행복교육 시작의 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을 새학년 초 교사와 학생이 온전하게 만나는 ‘행복 교육 시작의 달’로 운영키로 하고, 올해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정착 지원 계획을 24일 각 학교에 안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중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3월 학교 방송공문을 최소화하고, 4월 문서 발송도 지양할 예정.

이와함께 교육과정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교육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즉흥·관행적 행사 지양도 권고. 오은지기자

안심코드 설치 QR코드 제작

○…서귀포시 천지동이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용 QR코드를 제작해 제공.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화재, 24일 천지동에 따르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QR코드에 갖다 대면 터치 한번으로 제주안심코드를 설치할 수 있어 호응.

허중현 동장은 “휴대전화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한 후 제주안심코드를 검색하고 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특히 노년층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좋은 사책이 도내 전체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 백금탁기자

부 고

오재천(도남동 본가 대표), 재호(前 제주도청 법제팀장) 아버지 화순 오공 원회(요셉·국가유공자·향년 92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3일 14시 2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2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6일(금요일) 오전 9시 2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2빈소
▶장례미사: 2021년 2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중앙주교좌성당
▶장 지: 노형동 가족공동묘지

아 들 오재천(요셉) 며느리 고문희(미려아)
재호(스파나) 홍성실(배로카)
재진(알베르토) 이혜경(배로카)
재경(베드로) 강정림(글라)
딸 오영숙 사 위 김병협
손 자 오영중 손 부 이진주
유종세훈
손 너 오정화 손 서 이준호
윤지수 김동휘
수진
진아 위순자 김수한
외손녀 김주현

※ 연락처 : 오재천 010-8662-8522
오재호 010-3639-5215
오재진 010-7385-1419
오재경 010-3691-6646
오영숙 010-9914-2210

부 고

안동혁(일본농연구구 연구 그룹장) 아버지 순흥안공 대영(前 도의회 사무처장·향년 84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4일 07시 1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2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7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선을 가족묘지

부 인 이 화 자
아 들 안 동 혁 며느리 이 혜 진
딸 안 정 아 사 위 양 윤 호
소 회 부 민 호

※ 연락처 : 안정아 010-4007-8683
안소희 010-3639-2412
양윤호 010-3052-1014
부민호 010-4746-146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인순(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25일

남 편 강대원
아 들 강지훈 며느리 배연수
상훈 조영문
딸 강희경 사 위 고대만
유경 강대준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문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서울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RC약백도라지연구소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부이공 영수(향년 7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25일

부 인 고춘금
아 들 이성훈
지훈 며느리 김민선

빙의·신들림

중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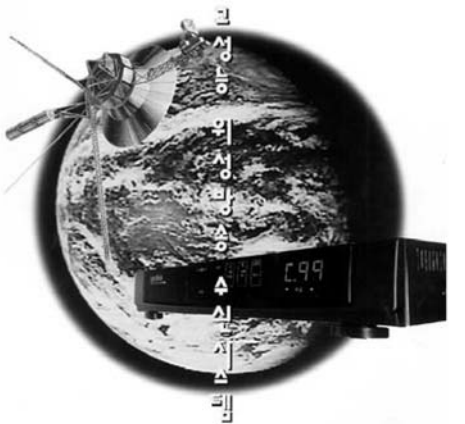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